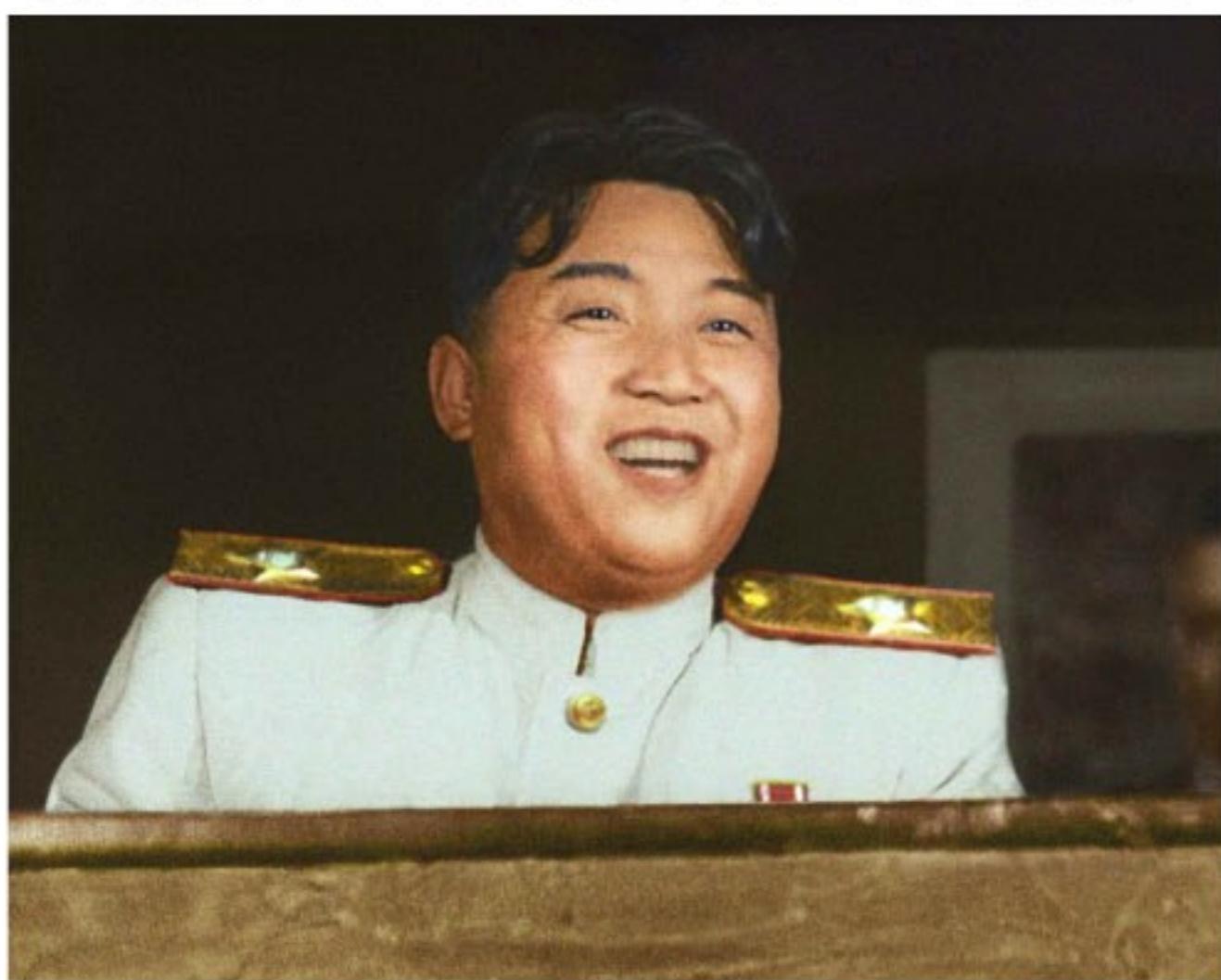




#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전승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하리



조선인민군 연합부마이상 군정간부회의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를 축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제 42(1953)년 8월



정전협정문건에 비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제 42(1953)년 7월



전체 조선인민에게 방송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제 39(1950)년 6월



전선을 찾으시여 인민군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제 40(1951)년 4월



공화국영웅 및 모범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제 40(1951)년 6월



모범전투원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제 40(1951)년 6월



강도작업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제 40(1951)년 10월



정찰구분대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제 41(1952)년 6월



전투훈련을 강화할 데 대하여 교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제 41(1952)년 6월



공화국영웅들 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제 42(1953)년 8월

# 강철의 령장 모시여 그 위훈 빛나는 근위부대들

우리의 전승절이 다가온다.  
위대한 승리자들의 노래, 우리의 전승절노래들이 도시와 농촌, 거리와 마을에 들려진다.

우리 조국의 승리를 구가하는 전승절노래들은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밟고 씩씩하며 또 잊을 주억을 담고 있을뿐아니라 미래지향적이다.

《근위부대 차량가》의 자부심 넘치고 멋들어진 선율이 전승절의 경축분위기를 한껏 둑어준다.

기록에 그 위훈 빛나는 근위부대들의 군기.

미국놈들이 바친 항복서를 밟고 지나온 광장에서 그 군기들이 제일 먼저 들어섰고 우리 태파 조국, 혁명 적무장력의 뜻깊은 기념일들을 경축 하던 광장들에도 근위부대들이 앞장 서 지속해 올리었다.

근위부대들을 떠나 어찌 우리의 전승절을 생각할 수 있으랴.

강철의 명장의 명령을 결사로 받을 때 우둔을 세운 부대들, 최고사령관들께서 그으으는 멍직의 뿐은 좌살표가 되었던 근위부대들은 진실같은 기적과 신화들을 조국에방전쟁에서 아로세웠다. 하늘과 땅, 바다 그 어디나 균위병들의 자유는 천연하다.

승리의 7. 27은 무적의 근위부대들을 키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노래한다.

주제 3(1950)년 7월 19일은 근위성호가 제정된 혁사적인 날이다.

지난해 2월 국적방전쟁 승리 기념판에 새로 꺼내진 근위부대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근위군 기관과 근위부대들 모두를 보시면서 전화에서 나설에 제정된 근위성호는 영웅전사들이 세운 특출한 공勋을 학사에 걸친 전과로 고마워하고 그 자랑스러운 부평전통을 세대에 이어 빛내어나가기를 바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최고의 표창, 최대의 영광이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근위군기밀마에서는 이러한 것이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실장마다에 조아막은 용사들,

수령님 가리키신 길을 따라 불타는 신호가에서 조국의 한치당을 피로써 치켜든 위훈의 자유자족이다.

《근위부대차량가》는 균위병들의 목소리이다.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혁명가격품으로 있어서나 인간적품으로 있어서나 그 누구도 겸결수 없는 위인종이 위인이다!」

사랑이 냉은 흔은 무한하다. 얼마 전 조국에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았던 우리는 한 영웅전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에 대하여 절감하였다.

보통과 원자탄의 대결이 있었던 지난 조국에방전쟁에서 우리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한 무기의 용광성진은 과연 어디에 뿐이었나?

주제 4(1951)년 1월초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으로부터 한달동안에 적기를 5대나 차운데 나아린 영웅전사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였다.

영웅의 위훈을 두고 만족해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이의 가르침은 일군의 기습에 세찬 적의로 파도를 물어버렸다.

점심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사의 고향으로 나가는 계선에 적들이 엄습이 되는 듯이 알아보았다.

일군으로부터 구체적인 적성을 해하신 위대한 수령님에서는 1개 편대를 직후에 파견하여 영웅전사의 가족을 보내기 위해 출판사에 몸에 맡은 적구에서 살피고 있다.

밀리 남쪽하늘가를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갈리신 용성

수령의 명령을 결사로 받들어 미제를 격멸한 부대 전승과 더불어 전 철로 기역 된 자랑한 근위부대들 조국의 빛나는 승리의 역사에 한창히 이로새겨진 그 이를 영원토록 후대들 간에 전해졌다. 군기야 그 위훈 빛나는 근위부대들 어제도 오늘도 매일도 영원한 영광을 펼치리

얼마나 멋진 구절들인가. 전화의 나날이 어제먼듯 삼삼히 밟혀온다.

위대한 수령 길임성 통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당의 령도에 민민군장병들은 조국에방전쟁에서 집단적영웅주의와 무기의 뜻깊은 기념일들을 경축 하면 광장들에도 근위부대들이 앞장 서 지속해 올리었다.

근위부대들을 떠나 어찌 우리의 전승절을 생각할 수 있으랴.

강철의 명장의 명령을 결사로 받을 때 우둔을 세운 부대들, 최고사령관들께서 그으으는 멍직의 뿐은 좌살표가 되었던 근위부대들은 진실같은 기적과 신화들을 조국에방전쟁에서 아로세웠다. 하늘과 땅, 바다 그 어디나 균위병들의 자유는 천연하다.

승리의 7. 27은 무적의 근위부대들을 키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노래한다.

주제 3(1950)년 7월 19일은 근위성호가 제정된 혁사적인 날이다.

지난해 2월 국적방전쟁 승리 기념판에 새로 꺼내진 근위부대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근위군 기관과 근위부대들 모두를 보시면서 전화에서 나설에 제정된 근위성호는 영웅전사들이 세운 특출한 공勋을 학사에 걸친 전과로 고마워하고 그 자랑스러운 부평전통을 세대에 이어 빛내어나가기를 바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최고의 표창, 최대의 영광이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근위군기밀마에서는 이러한 것이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실장마다에 조아막은 용사들,

수령님 가리키신 길을 따라 불타는 신호가에서 조국의 한치당을 피로써 치켜든 위훈의 자유자족이다.

《근위부대차량가》는 균위병들의 목소리이다.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혁명가격품으로 있어서나 인간적품으로 있어서나 그 누구도 겸결수 없는 위인종이 위인이다!』

사랑이 냉은 흔은 무한하다. 얼마 전 조국에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았던 우리는 한 영웅전사에 대한 이야장을 들으며 이에 대하여 절감하였다.

보통과 원자탄의 대결이 있었던 지난 조국에방전쟁에서 우리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한 무기의 용광성진은 과연 어디에 뿐이었나?

주제 4(1951)년 1월초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으로부터 한달동안에 적기를 5대나 차운데 나아린 영웅전사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였다.

영웅의 위훈을 두고 만족해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이의 가르침은 일군의 기습에 세찬 적의로 파도를 물어버렸다.

점심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사의 고향으로 나가는 계선에 적들이 엄습이 되는 들판에 몸에 맡은 적구에서 살피고 있다.

밀리 남쪽하늘가를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갈리신 용성

이 부대들은 배전액 송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반공적 명령을 높이 밟들고 노도같이 진적하여 뽑은 기간에 공화국남반부대의 거의 모든 지역을 해방하는데 앞장 섰으로써 전쟁 첫날부터 영웅적조선 인민군의 위력을 널리 시위하였다.

그 다음 영원토록 후대들 간에 궁금증으로 빛을 뿐인 군기야 그 위훈 빛나는 근위부대들 어제도 오늘도 매일도 영원한 영광을 펼치리

조선인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일군과 자리리를 같이하는 군기야 그 위훈 빛나는 근위부대들 어제도 오늘도 매일도 영원한 영광을 펼치리

전투를 벌리느라 한 부대의 공격 속도가 저연된다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대전서남쪽 윤산계선에 진출한 보병연합부대도 능히 타승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뚜렷이 확증하였다.

조국에방전쟁 평원대는 대전동남쪽강항으로 우회시켜 적의 루트를 차단하게 하였다.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지금 우리 인민군대는 짜우하는 적들을 소탕하면서 전투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조선인민군은 제 3 보병사단과 제 4 보병사단, 제 105 랭크로 단은 제 4 보병사단은 제 18 보병대는 대전동남쪽강항으로 우회시켜 적의 루트를 차단하게 하였다.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투를 벌리느라 한 부대의 공격 속도가 저연된다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대전서남쪽 윤산계선에 진출한 보병연합부대도 능히 타승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뚜렷이 확증하였다.

조국에방전쟁 평원대는 대전동남쪽강항으로 우회시켜 적의 루트를 차단하게 하였다.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뜻깊은 카르체실을 주시면 주제 3(1950)년 7월 26일의 그날을.

전승의 훈련장을 뜻깊게 점치는 전쟁 전쟁에 대 한

# 천만군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소리내려주는 선군나팔소리

군인가족 예술소조공연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

조선인민군 제2기 제6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이 17일부터 24일까지 수도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우리 당의 영도를 제일선에서 받들어나가는 어엿한 녀성혁명가, 선군혁명의 제2나팔수들로

자파난 군인가족들의 높은 사상 정신세계를 강령 깊게 펼쳐보인 공연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인민군장병들, 군인가족들, 문학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 교원, 학생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펼쳐졌다.

설화와 합창 「김정은장군께 영광을」, 대회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축복』, 기악 4종창 『장군님생각』, 노래와 이야기 「우리도 만리마기수라오」, 합창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린 출연자들은 광연은 혁명열, 투쟁열을 퍼뜨려 수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해주는 것으로 하여 관람자들 간직하고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약관에 넘쳐 사회주의강국전

성위업을 앞장에서 만들었거나는 군인가족들의 무생모습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당의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당정체系에 힘있게 맥박치는 광연은 혁명열, 투쟁열을 퍼뜨려 주제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해주는 것으로 하여 관람자들 속에서 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충족은 남편들의 부사수, 병사들의 어머니가 되어 수령걸시옹위의 전초선을 밀접하게 저지하는 군인가족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공연에 통하여 위대한 당의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힘있게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그들은 군인가족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투쟁기운을 본받아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영에도 운승리자가 절절의 희망을 품고 있다.

공연에 통하여 위대한 당의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힘있게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그들은 군인가족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투쟁기운을 본받아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영에도 운승리자가 절절의 희망을 품고 있다.

전체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서 제시된 전투적파업을 결사판

철함으로써 이 땅에 우상무고

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밀어세우고자 헌신하는 혁명적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당의 군중문화에 술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힘 있게 시사하면서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로 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면서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지의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정중히

봉헌하는 4. 25문화화관의 전경을

역사적인 당대회가 열렸을 때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광

정신으로 불같은 우승리자

를 이루며 대회를 대체하게 되었다.

전체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서 제시된 전투적파업을 결사판

철함으로써 이 땅에 우상무고

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밀어세우고자 헌신하는 혁명적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당의 군중문화에 술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힘 있게 시사하면서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로 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면서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지의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정중히

봉헌하는 4. 25문화화관의 전경을

역사적인 당대회가 열렸을 때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광

정신으로 불같은 우승리자

를 이루며 대회를 대체하게 되었다.

전체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서 제시된 전투적파업을 결사판

철함으로써 이 땅에 우상무고

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밀어세우고자 헌신하는 혁명적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당의 군중문화에 술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힘 있게 시사하면서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로 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면서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지의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정중히

봉헌하는 4. 25문화화관의 전경을

역사적인 당대회가 열렸을 때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광

정신으로 불같은 우승리자

를 이루며 대회를 대체하게 되었다.

전체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서 제시된 전투적파업을 결사판

철함으로써 이 땅에 우상무고

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밀어세우고자 헌신하는 혁명적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당의 군중문화에 술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힘 있게 시사하면서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로 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면서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지의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정중히

봉헌하는 4. 25문화화관의 전경을

역사적인 당대회가 열렸을 때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광

정신으로 불같은 우승리자

를 이루며 대회를 대체하게 되었다.

전체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서 제시된 전투적파업을 결사판

철함으로써 이 땅에 우상무고

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밀어세우고자 헌신하는 혁명적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당의 군중문화에 술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힘 있게 시사하면서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로 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면서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지의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정중히

봉헌하는 4. 25문화화관의 전경을

역사적인 당대회가 열렸을 때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광

정신으로 불같은 우승리자

를 이루며 대회를 대체하게 되었다.

전체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서 제시된 전투적파업을 결사판

철함으로써 이 땅에 우상무고

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밀어세우고자 헌신하는 혁명적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당의 군중문화에 술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힘 있게 시사하면서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로 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면서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지의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정중히

봉헌하는 4. 25문화화관의 전경을

역사적인 당대회가 열렸을 때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광

정신으로 불같은 우승리자

를 이루며 대회를 대체하게 되었다.

전체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서 제시된 전투적파업을 결사판

철함으로써 이 땅에 우상무고

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밀어세우고자 헌신하는 혁명적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당의 군중문화에 술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힘 있게 시사하면서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로 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면서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지의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정중히

봉헌하는 4. 25문화화관의 전경을

역사적인 당대회가 열렸을 때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광

정신으로 불같은 우승리자

를 이루며 대회를 대체하게 되었다.

전체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서 제시된 전투적파업을 결사판

철함으로써 이 땅에 우상무고

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 승리의 7. 27을 안아온 전쟁로병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 전쟁의 마지막 날은 이렇게 흘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 해방전쟁에서 이 승리는 수령님의 티벌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험활한 전략전술의 승리이며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대처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단은 애국심과 백성을 불러온 투정정신의 승리입니다.』

3년간에 걸쳐는 조국해방전쟁은 드디어 마지막결전을 앞두고 승부가 끝나고 있었다. 자기 수령에 대한 물같은 충성과 열렬한 조국으로 춤을 추는 군용사들과 후방인들은 물론 전승의 그날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싸워온 적후의 정찰병들도 조국의 숨결에 라자오의 주파수를 맞추며 그 흐름을 진강하게 살피고 있었다. 이미 아군 용사를 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1953년 5월 중순부터 전쟁 제3차 대적전은 적방 7만 8,000여 명을 살상포로하고 160km의 땅은 지역을 해방하는 혁력한 전과를 이루하였다.

그런 속에서 7월 26일 새날이 밝아왔다. 이날 오후 방송으로 조선정전협정조인과 관련해 종소식이 알리면서 전선과 후

전쟁 3년간 내가 들었던 무기는 총이 아니었다. 조선인민군부대 후보연우를 해쳐온 나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광휘한 무기는 손총이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혁명적 민족관주의는 자기 위엄의 정당성과 그 승리를 확신할 때 가지게 됩니다.』

우리 혁주단의 첫 화선공연은 해방된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영생불 및 혁명성 축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서울시로 전갈하고 흥얼거렸다.

우리 해방군은 그 날 김일성장군님의 정치에 감복된 수많은 청춘들이 저마다 저마다 의용군에 반원하면 활동을 나는 80여년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일을 하였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주단의 첫 공연을 저도 해주시면서 조국과 인민이 요구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펼칠 수 있도록 글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다는 뜻을 가르치셨다. 그날의 카르지침을 종근에 숙고하고 그렇게 진행한 한차례에 한차례에

방은 더욱더 긴장감과 초조감에 휩싸이었다. 당시 제47보병사단 124보병연대 1대대 탕위원장이 있던 한통수 전쟁로병은 그때의 전장감이 적의 포위나 포성보다 더 숨가빴다고 후억하였다. 전쟁의 마지막시기에도 적들의 딜악은 계속되었다. 적들의 포사격은 전쟁조인날자에 발표된 7월 26일 17시부터 더욱 적렬해졌다. 이군의 포들은 또다시 적진을 향하여 적의 포물에 걸어들었다. 드디어 방송을 통하여 명령이 전달되자 조국의 수많은 고지불과 활동들, 후방의 일터와 거리, 마을에서는 끝없는 환호성이 울려퍼졌다.

전선에서는 전승의 기쁨과 환희속에서 비무장지대 실성을 따르는 2km의 철수준비가 질서 정연히 진행되고 후방의 인민들은 이 전승을 축하하며 후방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 시각 미제는 저들의 폐해를 인정하는 정전협정조인문에 도장을 찍었다.

미국군과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펄러크는

10분동안이나 손을 두루두루

떨다가 험경문에 겨우 표를

나는 모든 것에 실폐되는 감을

가지고 있다. 나의 선임자들은

아이와 헤지웨이 장군들도

동쪽에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의 하나는 공화국기발이었다.

다른 하나는 미국전쟁상인

들이 그림에 숨어 백주에 남의

나라를 집어삼키려면 용언의 푸른 기발이었다.

조선인민은 시작했다.

오늘 우리 인민이 혁사적인

의 공연은 목숨을 내걸 피의 결

되었던 무기는 총이 아니었다.

조선인민군부대 후보연우를 해

쳐온 나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광휘한 무기는 손총이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혁명적 민족관주의는 자기 위엄의 정당성과 그 승리를 확신할 때 가지게 됩니다.』

우리 혁주단의 첫 화

선공연은 해방된 서울

에서 진행되었다. 영생

불 및 혁명성 축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서울시로 전갈하고 흥얼거렸다.

『승리』 양기들에게 죽음을 주자!

우리들은 미눈물을 쌔어삼키면서 1211고지로 올랐다.

무대도 막토 없는 정도안에서

전쟁한 우리들의 비장한 화선공연은 그때 1211고지 용사들의 절전속에 무용이 끝난 뒤에

나타나는 그날의 손총이었다.

우리가 불놓는 고지에서 화선

악기를 만들어 온 세상이 보란

듯이 군부지에 출죽전에 전쟁할

수 있는 송리에 대한 신심과 힘든 것이다.

싸움터에서 승전기를 높이

이루리며 쟁기로 펼친 우리

군은 그때 105포병사단을 찾은 우리 소련대의 공연보

음이 남아있는데 땅크우에서 손

총을 치는 젊은 시절 나의 모

습을 볼 때면 생각이 길어졌다.

해방전 학교를 앞에 가를 엄두

조차 내지 못했던 내가 손총을

배운 것은 그 어떤 전문예술

집단이나 청규대학은 더욱 아니

다. 전화의 나님에도 전후에도

그날의 카르지침을 종근에 숙하

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화선

리를 이어가는 우리들에게는 병

사들을 만나는 뜻이 곧 뮤대였

고 그렇게 진행한 한차례에

총을 치는 젊은 시절 나의 모

습을 볼 때면 생각이 길어졌다.

해방전 학교를 앞에 가를 엄두

조차 내지 못했던 내가 손총을

배운 것은 그 어떤 전문예술

집단이나 청규대학은 더욱 아니

다. 전화의 나님에도 전후에도

그날의 카르지침을 종근에 숙하

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화선

리를 이어가는 우리들에게는 병

사들을 만나는 뜻이 곧 뮤대였

고 그렇게 진행한 한차례에

총을 치는 젊은 시절 나의 모

습을 볼 때면 생각이 길어졌다.

해방전 학교를 앞에 가를 엄두

조차 내지 못했던 내가 손총을

배운 것은 그 어떤 전문예술

집단이나 청규대학은 더욱 아니

다. 전화의 나님에도 전후에도

그날의 카르지침을 종근에 숙하

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화선

리를 이어가는 우리들에게는 병

사들을 만나는 뜻이 곧 뮤대였

고 그렇게 진행한 한차례에

총을 치는 젊은 시절 나의 모

습을 볼 때면 생각이 길어졌다.

해방전 학교를 앞에 가를 엄두

조차 내지 못했던 내가 손총을

배운 것은 그 어떤 전문예술

집단이나 청규대학은 더욱 아니

다. 전화의 나님에도 전후에도

그날의 카르지침을 종근에 숙하

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화선

리를 이어가는 우리들에게는 병

사들을 만나는 뜻이 곧 뮤대였

고 그렇게 진행한 한차례에

총을 치는 젊은 시절 나의 모

습을 볼 때면 생각이 길어졌다.

해방전 학교를 앞에 가를 엄두

조차 내지 못했던 내가 손총을

배운 것은 그 어떤 전문예술

집단이나 청규대학은 더욱 아니

다. 전화의 나님에도 전후에도

그날의 카르지침을 종근에 숙하

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화선

리를 이어가는 우리들에게는 병

사들을 만나는 뜻이 곧 뮤대였

고 그렇게 진행한 한차례에

총을 치는 젊은 시절 나의 모

습을 볼 때면 생각이 길어졌다.

해방전 학교를 앞에 가를 엄두

조차 내지 못했던 내가 손총을

배운 것은 그 어떤 전문예술

집단이나 청규대학은 더욱 아니

다. 전화의 나님에도 전후에도

그날의 카르지침을 종근에 숙하

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화선

리를 이어가는 우리들에게는 병

사들을 만나는 뜻이 곧 뮤대였

고 그렇게 진행한 한차례에

총을 치는 젊은 시절 나의 모

습을 볼 때면 생각이 길어졌다.

해방전 학교를 앞에 가를 엄두

조차 내지 못했던 내가 손총을

배운 것은 그 어떤 전문예술

집단이나 청규대학은 더욱 아니

다. 전화의 나님에도 전후에도

그날의 카르지침을 종근에 숙하

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화선

리를 이어가는 우리들에게는 병

사들을 만나는 뜻이 곧 뮤대였

고 그렇게 진행한 한차례에

총을 치는 젊은 시절 나의 모

습을 볼 때면 생각이 길어졌다.

해방전 학교를 앞에 가를 엄두

조차 내지 못했던 내가 손총을

배운 것은 그 어떤 전문예술

집단이나 청규대학은 더욱 아니

다. 전화의 나님에도 전후에도

그날의 카르지침을 종근에 숙하

## 절세위인의 전승업적과 더불어 영원할 승리의 역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之下 민족의 천민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는 거대한 사변들을 다방적으로, 런방적으로 총조례온 우리 군에 민족으로 민족으로 코나큰 공지와 험난한 운명을 온 누리에 펼쳐온 김일성주석님은 민족의 영원한 구세주, 절세의 위인이다. 그리고 성충한 태양 회회회...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타월한 전승업적을 둘러펴보는 남녘의 각계층 인민들은 만만한 민족자족에 힘을 모아하고 높이 모신 백두의 천출위인에 대한 열화같은 성충의 정을 암고 그이의 태양의 모습을 숭송해 우러르고 있다.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자며 전전에 충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 군대와 민민은 미제를 쳐부시고 영웅으로 불러의 기상을 온 누리에 펼쳐었다.

이 풋짚은 전승의 날을 맞으며 남녘제례들의 가슴속에도 코나큰 민족적 길지와 자부심이 한껏 차넘치고 있다.

남조선의 한 군사전문가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세계전쟁에서는 뛰어난 용맹과 기질로 무흔을 펼친 장군들도 많고 비범한 군사전략파 전쟁으로 전승하는데 기여한 군사가들도 많았다. 그러나 한세대에

위대한 두 제국주의를 타파하고 반제자주위업의 새 역사를 펼쳐 주신 위대한 타월한 전승위인은 김일성주석님뿐이시다.』

그들이 아니라. 『아무리 럭사를 더듬어보아도 김일성주석님처럼 그렇듯 불멸한 전승업적을 쓴은 위인과 명장은 없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

는 경로임을 표시한 전파복도의 한 교수, 『가장 보악한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 떨망의 철주를 내리시며 민족의 자주권을 한 지략과 비범한 행군술, 강철의 담력과 백승의 의지가 알아온 뒷나는 결실이었다.』

그에 대해 남조선의 한 통일 운동단체 청원은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이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시며 김일성장군님의 위대한 영도의 결과였다.』라고 격정을 터쳤다.

대전의 주민들은 『상승사단』이라고 유프리에 전시되며 24시간을 토워설하하여 원대포위전의 및 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행군술을 지금 높이 칭송하고 있다.

한 주민은 『김일성주석님에서는 대전에 있던 미군을 소탕하기 위하여 축지법을 쓰셨다. 난파박한 사이에 대전은 포위되고 『상승사단』이라고 하며 24시간은 독립에 드워졌다. 그리고 사단장 린은 포로세나 되었다. 조국에 방전쟁이 이북의 승리를 끌었을 때 우리 삶을 이 『김일성장군님은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영광이시다.』라고 하면 이야기는 정말 일희지지 않는다. 그의 말에 흥을 토로하였다. 그의 말에 흥을 토로하였다. 한 주민도 『정말 그렇다. 전쟁에서도 한번도 폐한적이 없다고 자랑하면서 미군은 일민군에 가난한 끝나는 곳마다 일어나고 높아졌다. 김일성주석님의

스럽게 떠들어대면서 여기저기에서 만공화국에 걸

공조를 구걸한 것은 민족을 등지고 외세와 공모결

동족을 마구 끌어들여 미치광이처럼 날뛰었다.

역도는 그 무슨 『북미화회』니, 『솔마른 회화』니, 하면서 우리에 대한 입에 달지 못 할 악

담을 놓아놓았는가 하면 『제재조치의 리행』에 대해서 다시 남발할 때와 외세와 결탁하여 우리

미제를 서산라일의 운명에 끌어들여 미제의 대결과 함께 충돌한

여기고라고 하면 창녀외교라고 하는것이 세

적일 것이다.

사실 박근혜역도의 이번 해외행각은 군부적인

『씨드』배치 결정에 적노한 남조선민심의 항거와

규탄에 물을 모면해보려는 도미행각이었다.

『씨드』배치기준으로 남조선민심이 죽기마

끌고 하자 좋게들에 『불필요한 혼장을 끝내

나고 있다. 그리고 해외행각에 『불필요한